



澤堂 李植과 그의 讀書觀

尹 炳 泰
 〈慶北大圖書館學科·專講〉

一.

近來에 나온 讀書나 讀書指導에 관한 몇가지 책들을 보면 매우 多種多様な 讀書에 관한 豊富한 知識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듬어 생각하여 보면, 우리의 先人들에게는 마치 讀書에 대한 아무런 先見이나 定見이 없었던 것 같이, 아무도 先人들에 대하여는 言及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日本人이나 西洋人의 讀書나 讀書指導의 見解만을 引用하여 成冊한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無主體性的인 著述에 대하여 앞으로는 좀더 우리의 것을 먼저 알고 다음에 책을 쓸 수 있도록 啓蒙하는 뜻에서, 우리 先人의 讀書나 讀書觀에 대하여 다루어볼까 생각한다.

先人중에서도 教育史에 매우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澤堂 李植의 讀書觀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의 生涯를 더듬어 보고, 얘기를 展開하기로 한다.

二.

澤堂 李植은 字가 汝固이고, 德水李氏로 容齋 李荇의 曾孫인 道察訪을 지낸 李安性을 父로 茂松尹氏를 母로 하여, 宣祖17年甲申(1584) 10月11日에 서울 南小門에서 태어났다.

澤堂이 9歲이던 해(1592)에 壬辰戰이 일어나자 江原道를 거쳐 全北 古阜 兩日庄으로 가서 亂을 避하였다. 나이 12歲되던 乙未年(1595)에 가서야 進士로 있던 文僊에게서 《史略》을 受學하였다. 이 당시에 澤堂은 瘧疾(마라리아病)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1596)에는 瘧疾 때문에 공부를 그만 두기(癡學)에 이르렀다. 17歲인 庚子年(1600)에 아버지 李安性이가 서울 南廟인 關王廟를 監造하는 都監을 맡자, 따라다니다가 中國人과 자주 만나서 어울리게 되었으며, 中國의 風俗이나 事情을 익히 알게 되었다. 18歲에는 玉果縣監인 沈俺의 女 青松沈氏를 夫人으로 맞이하였다. 이 夫人

의 曾祖父는 國舅인 靑陵府院君, 沈綱이요 外祖父는 左贊成인 具思孟이었다.

光海2年庚戌(1610) 27歲時에야 科擧에 應試한지 세 번만에 처음으로 別試에 及第하였고 權知成均館學諭에 任命되었다.

3年後인 癸丑(1613) 4月에는 待講院의 說書가 되었다. 이 해 8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砥平에다 卜葬하고, 3年後에는 先祖의 墓를 遷葬한 다음 이 두가지 일을 記錄한 《啓山志》를 지었다.

光海8年丙辰(1556) 4月에는 北評事가 되었다가 7個月만에 罷職되었는데 이 時期에 《北塞錄》을 지었으며 또 《北關志》를 지었다. 그 後 宣傳官(1617), 兵曹佐郎(1619.4), 寧邊府 判官(1619.6)을 지나기도 하였으며, 光海14(1622) 7月에는 楊江에서 親友들과 唱酬한 글을 묶은 唱酬集에 〈後序〉를 짓기도 하였다. 仁祖가 反正한 後에는 可憲府 持平·吏曹佐郎·成均館典籍·弘文館 副修撰을 지나기도 하고, 湖堂에도 뽑혔으며 校書館 校理를 거쳐 吏曹佐郎으로 옮긴 일도 있다.

丁卯胡亂時(1627)에는 世子를 陪衛하여 全州까지 갔으며, 募軍하여 功을 세운 까닭에 大司諫을 任命받았다. 仁祖9年辛未(1631) 8月에는 杆城縣監으로 나간 일도 있으나, 2年後에는 副提學이 되어 上京하였다. 仁祖12年甲戌(1634) 5月에는 《光海日記》의 修撰官으로 任命되어 《日記》36冊을 纂修하였고, 그 때의 《纂修廳題名錄》에 序文을 지었다. 이듬 해(1635)에는 《攻事撮要》를 續編하였으며 題跋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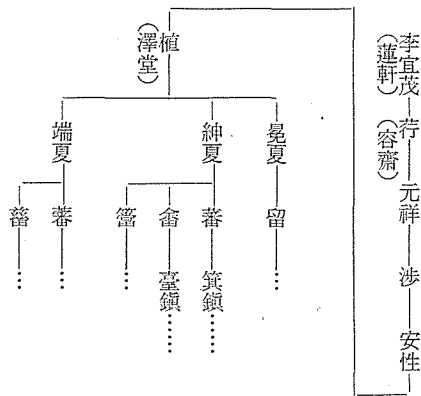
丙子年(1636)에는 文衡에 뽑혔으니 嘉善大夫에 올라 弘文館 大提學·藝文館 大提學·知成均館事로 있었다. 그러나 胡亂中에 어머니를 모시고 提川으로 갔기에 大臣職에 있는 者가 逃亡하였다는 말이 돌아서 還京하여 待罪하였다. 일이 無事하게 되자 同知春秋館事가 되었으며, 大司憲을 지나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 居廬할 때에는 性理書를 收聚하여 《初學字訓》3篇을 編輯하였는데, 仁祖17年己卯(1639)에는 그 〈跋文〉을 지었다. 같은 해에는 《澤堂叢玩》이라는 책을 編하면서 그 〈序·跋〉을 지었다. 이 책은 지금도 高麗大

學校 中央圖書館에 傳存하고 있다.

이듬 해인 仁祖18年庚辰(1640)에는 禮曹參判으로 있었는데 일찍부터 批註하였던 《杜詩批解》의 〈跋文〉을 지었다. 그 後에는 大司憲·大司諫·禮曹參判·大提學 그리고 다시 大司憲을 지내기도 하였다. 仁祖21年癸未(1643)6月에는 赤裳山城에 《實錄》을 考閱하고 7月에 復命한 일도 있다. 이어 刑曹判書·禮曹判書·吏更判書를 여러번 번갈아 되풀이하면서 歷任하였으나 仁祖24年丙戌(1646)8月에는 試題의 일로 罪를 입고 罷職되었다. 이듬 해 (1647)는 痢疾을 앓다가 6月9日에 卒去하였으니, 그 때의 나이가 64歲였다.

그에게는 앞에선 冊 以外에도 先祖의 事蹟과 傳記를 모은 《德水世系列傳》1卷의 編著가 있으며, 그의 著作을 모은 《澤堂先生集》과 그 《續集》·《別集》·《摛造》등 모두 34卷17冊이 湖南地方에서 刊行되어 金提郞에 藏板하고 있다.

그에게는 冕頁·紳頁·端頁의 세 아들이 있으니, 長男은 弘文館修撰·次男은 禮賓寺正·三男은 議政府 左議政을 지냈다. 孫子도 많이 있으나, 次男의 第二子인 畚은 議政府 領議政을 지냈으며, 曾孫中의 箕鎭은 觀察使를 지낸 일도 있다. 그의 家系를 略述하면 아래 系圖와 같다.



三.

澤堂 李植의 讀書에 關한 見解는 그의 文集의 곳곳에서 보이고 있으나, 가장 重要한 것은 《澤堂先生別集》卷之十四에 있는 〈示兒孫等〉과 같은 책 卷之十五에 있는 〈示兒代筆〉이라는 雜著속의 글들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 두篇의 글은 모두 澤堂의 教育觀과 思想觀을 縮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글들이다. 특히 前者의 글은 讀書의 차례, 어떤 面에 있어서는 教育課程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 그 全文을 紹介한다.

示兒孫等

先 讀

- 詩書〈以大文限百讀〉
- 論〈兼章句熟讀限百數〉
- 孟〈大文讀百數〉
- 庸學〈不限數朝夕輪誦〉
- 綱目宋鑑〈與先生講學一番熟覽有好文字抄書 一兩卷讀數十番若不及通鑑少徵節 要史略中先學一冊

次 讀

- 周易大文〈初讀交辭識大旨知占法兼看啓蒙待盡 讀他書後更講究
- 春秋左氏胡氏傳〈只數番讀領略大旨○左傳抄讀公羊穀梁餘力一覽大抵四傳並讀好
- 禮記〈與先生講論抄讀好文字處〉
- 儀禮〈讀禮記時通考而不讀〉
- 周禮〈讀春秋時亦通考〉
- 小學〈學於先生一月一讀過逐日念着服行〉
- 家禮〈常時講究服行不至讀〉
- 近思錄性理大全性理羣書心經二程全書朱子全書〈此是大段工夫但不在多讀要大講論 體認服行而已窮理工夫全在是

科文工夫

- 韓柳蘇文 文選 八大家文 古文眞寶 文章 軌範等中
- 從所好鈔讀一卷限百番〈此屬先讀〉
- 班馬合抄一冊母過三十篇限百讀
- 荀韓楊中抄一冊數十番讀
- 文選楚辭抄一冊李杜韓蘇黃七言母過兩冊〈常時 讀誦不限數學賦學詩者擇於二者
- 四六文母過一冊
- 老子莊列之屬讀近思錄諸書時旁考不讀
- 歷大史全書東國史及文集等經國大典國朝典故
- 小說讀綱目後旁考
- 東人科製抄得數冊作文時考閱

이 글을 다시 쉽게 풀이한다면 아래와 같다.

아해와 손자들에게 시키노니

- 먼저 읽을 것은
- 詩經과 書經은 經文의 大字만 百번 읽기를 한할 것,
- 論語는 朱熹의 章句까지 익숙할때까지 읽되 百數十회에 한할 것,
- 孟子는 읽되 大文만 百數十회를 읽을 것,
- 中庸과 大學은 몇차례로 제한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여 외을 것,
- 資治通鑑綱目과 宋元鑑目은 先生이 講할 때에 한번

익숙하게 보아두되, 좋은 글이 있으면 한 두卷쯤 베껴 써서, 數十번을 읽되, 만일 미치지 못하면 通鑑·少微家塾通鑑節要·史略의 세가지 책중에서 먼저 한 책을 배우라.

다음 읽을 것은

- 周易의 經文 大字인데, 먼저 交辭를 읽고 대강의 뜻을 알게 하고 占法을 알려면 啓蒙을 함께 보되, 다 본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어 더욱 더 연구할 것,
- 春秋는 左氏傳과 胡氏傳을 다만 여러번 읽되 대강의 뜻만 알게하라. 左氏傳은 추려서 읽고, 公羊傳과 穀梁傳은 여력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되, 대체로 四傳 즉 左氏傳·公羊傳·穀梁傳·胡氏傳은 함께 읽으면 좋겠다.
- 禮記는 先生과 講論할 때 좋은 글만 골라서 읽을 것
- 儀禮는 禮記를 읽을 때 상고할 뿐으로 읽지는 말 것
- 周禮는 春秋를 읽을 때에 상고만 할 것,
- 小學은 先生에게 배우되 한달에 한번씩을 읽을 것이며, 매일 생각하면서 그대로 行할 것,
- 家禮는 항상 講究하여 行하되 읽어버릴 것까지는 없다.
- 近思錄·性理大全書·性理羣書·心經(附註)·二程全書·朱子大全과 같은 책들은 매우 工夫하여야되는데 많이 읽을 것은 없고, 다만 대강만 알고 行할뿐이며 끝까지 연구하여 공부하려면 이것만 하는 것에 있다

과거를 위한 工夫에는

- 韓·柳·蘇文은 文選·唐宋八大家文·詳說古文眞實·文章軌範 속에서 좋은것 한권만 추려써서 읽되 百번을 한할 것이니, 이는 먼저 읽어야 할 것,
- 班固의 漢書나 司馬遷의 史記는 습쳐서 한책으로 추려 30篇이 넘지않도록 하여 百번을 읽을 것,
- 荀子·韓非子·楊子 속에서 한책으로 추려서 數十번 읽을 것이다.
- 文選의 楚辭는 한책으로 추리고, 李白·杜甫·韓愈·蘇軾·黃山谷의 七言詩들은 두책을 넘지 말 것이니, 항상 읽어서 외우되 數는 制限하지 말며, 賦를 배우거나 詩를 배우는 사람은 이 두가지에서 골라야할 것이다.
- 四六文은 한책을 넘지말 것,
- 老子·莊子·列子같은 道家의 책들은 近思錄등 여러 책을 읽을 때에 참고로 찾아볼 것이지 읽지는 말아야하며,
- 中國의 여러 歷史나 우리나라 歷史와 文集들, 經國大典이나 우리나라의 典故를 쓴 것, 小說 등은 資治通鑑綱目を 읽은 다음에 참고로만 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科擧에서 지은 글들을 몇책 베껴서 글을 지을 때의 참고로 본다.

四.

위의 글에서 우리는 澤堂이 가지고 있는 讀書에 대한 몇가지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다.

1. 讀書目的에 따른 讀書對象의 區分

이것은 讀書의 目的을 敎養을 위한 讀書인 <先讀>과 <次讀>으로 나누어 놓은 것과, 試驗을 위한 讀書인 <科文工夫>로 大別한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2. 讀書의 方法

澤堂은 책에 따라 그 重要度를 考慮하여 讀書하는 方法을 달리 說明하고 있다. 例를 들면

- ㄱ. 한번 읽고만 지나갈 것.
- ㄴ. 여러번 읽을 것.
- ㄷ. 百번에 限하여 읽을 것.
- ㄹ. 아침 저녁으로 읽어서 외울 것.
- ㅁ. 좋은 글이 있으면, 추려서 읽을 것.
- ㅂ. 베껴모아 책을 만들어 읽을 것.
- ㅅ. 잠깐 참고만 할 것.
- ㅇ. 通讀은 말 것.

등등의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어떤 책을 어떤 方法으로 읽어야할 것인가는 위의 글에서 讀者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음으로 略한다.

3. 必讀書目的 提示

澤堂이 위의 글에서 提示한 책들 속에는 必讀書가 相當하게 包含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우리나라의 大學에 있어서의 敎養百選과 같은 選定書目에 들어 있는 것이 거의 全部인 것을 보면, 澤堂이 選擇한 必讀書가 오늘날에도 通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 不讀書의 提示

앞의 必讀과는 反對로 不讀할 책도 몇가지 보이니, 이 책들은 잠깐 상고만 할 일이지 通讀을 권하지 않고 있다. 例를 들어, 儀禮와 같은 책은 禮記를 읽을 때에 참고만 할것이지 읽지말라고 한 것은 이 책의 儀式이 매우 複雜하고 日常生活에 直接 無關한 일이 많음을 들어 지적한 것 같다. 한편 道家書를 不讀書目속에 넣은 것은, 이 책이 近思錄에 引用은 되었으나, 傳家의 思想과 상치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5. 讀書와 生活과의 連關

澤堂이 小學·家禮·近思錄 등 여러 책을 들어 “服行”이라 하여 讀書한 內容을 日常生活에까지 應用하여 行動할 것을 指摘한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마땅한 얘기라 할 것이다. 敎養書籍에서 읽은 바를 生活化하고 또 行動化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時代의인 觀點에서도 必要한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6. 主體觀의 不排除

澤堂의 生存時의 時代의背景으로 不得하게 中國의 책을 주로 讀書의 對象으로 들었겠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책도 들어 참고할 것을 말하고 있다. 例를 들어 우리나라의 歷史나 文集·經國大典이나 그밖의 우리나라 典故에 관한 책들을 든 것은, 이러한 책들의 內容이 科擧에서는 크게 問題化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것은 알아야만 한다는 主體的思想이 그에게 있었다는 證據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西洋文物 萬能의 時代와 마찬가지로 當時에는 中國文物 萬能의 時代의背景아래에서 살고 있었던澤堂에게 이러한 讀書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精神文化를 되찾고 다 努力하고 있는 것과 같은 思想의 根據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五.

以上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內容의 글을澤堂이 지어서 남긴 것은 <示兒孫等>이라는 글의 <科文工夫> 끝에 좀더 자세한 풀이가 있어, 이를 다듬어 보면 그의 讀書觀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紙面關係로 略하기로 하고, <示兒孫等>을 지었던 當時의澤堂의 事情만 잠깐 살펴보고 지나간다.

澤堂이 <示兒孫等>을 지은 時期는 이 글 文末에 있는 글에 「…壬午之日澤堂老人書」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仁祖20年壬午(1642)의 설날인 것 같다.澤堂은 이때 回甲을 바라보는 59歲의 일이다. 그는 이 글은 짓기 前年에는 正月에 大司憲의 職을 맡았으나 南以雄의 일을 彈劾하다가 如意치 않으므로 2월에 辭任하였으며, 3월에는 《宣祖實錄》의 改修를 上劄하여 이를 舉行하게 하였고, 4월에는 吏曹參判을 맡아 科擧를 行함에 있어 《易經》에서만 講題를 내면 이 《易經》과 비슷한 《春秋》에만 공부하 지우칠 것을 反對한 일이 있고, 7월에는 休暇를 얻어 故鄉인 砥平으로 간 일도 있다. 그가 다시 上京하여 還朝한 다음 大司諫과

同知成均館事를 맡은 것이 바로 仁祖20年壬午(1642)丑月の 일이었으므로,澤堂이 <示兒孫等>을 草案하고 쓴 것은 그가 砥平에서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六.

以上에서는澤堂 李植의 傳記의資料와 더불어, 그가 兒孫들에게 남긴 글을 通하여 그의 讀書觀을 紹介하면서 잠깐 言及하였다.

澤堂이 남긴 글은 오늘날의 敎養讀書나 讀書指對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紹介하였다. 그에게는 이와 달리, 여러가지 讀書나 著作에 관한 많은 글이 남아 있다. 그가 특히 初世敎育이나 그 敎科書 編纂을 여러가지 行하였으며, 또 中國에서 行한 《三字經》과 같은 敎科書 등을 우리나라에서 刊行配布하여 敎育에 任하게 한 것등은 그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別稿에서 다룰까 생각한다.

이澤堂의 讀書觀 뿐만 아니라, 圃隱·陽村·退溪·栗谷 그밖의 여러 先人들의 讀書觀 등을 모두 整理하여 보면, 우리의 主題性 있는 讀書指導觀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